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손 오 규*

목 차

- I. 서 론
- II. 시가의 발생
- III. 시가분석의 실제와 지도
- IV. 결 론

I. 서 론

고전시가는 고전문학의 중심이다. 우리의 시가는 그 발생의 연원이 무척이나 오래되었고 기원 또한 그러하다. 동시에 여러 계층의 작가 들에 의하여 다양한 양식의 시가들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詩歌史의 史으로 볼 때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종류의 역사적 장르를 탄생시켰으며 많은 작품들이 현재도 전하고 있다. 따라서 고전시가교육은 문학교육의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한다. 이대규교수는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세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문학이론의 관점에서 문학현상(문학작품이 창작되고 감상되는 현상)을 합리적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개별 문학작품의 해석능력과 감상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셋째는 개별 문학 작품의 해석과 감상의 누적적 경험의 결과로 발달되는 내면적(정신적) 특성이다.”¹⁾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고전시가교육의 목적은 문학이론교육에 있음이 자명하다.

* 제주대 교수

1) 이대규, 『국어과 교육의 과정』, 한글과컴퓨터, 1994, p. 217.

이에 교과서에 실린 시가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하기에 알맞는 지도법을 개발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문학이론을 이대규교수는 외재적 문학이론, 구조주의 문학 이론, 내재적 문학이론²⁾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에서 고전시가는 특히 내재적 문학이론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여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고전문학교육은 주로 역사사회주의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 결과 문학교육은 문학의 심미성이나 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상력의 도야 등이 올바르게 교육되지 않았던 경우도 허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문학의 내재성 중에서도 서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고전시가의 발생과 흐름 그리고 지도상의 유의점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시가의 발생

시는 서정 중심의 문학이다. 서정은 정을 펼쳐내는 것이다. 정은 마음(心)이 어떤 일이나 사물을 대할 때 생겨나는 감정으로서 七情으로 대표된다. 감정은 마음의 어떤 상태나 성향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서정은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상자의 감정이며, 동시에 대상의 감상으로부터 느낀 주체의 마음상태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해 나가는 미적기능까지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서정의 대상은 단순히 사물이나 자연 내지 자연환경만을 지칭하지 않고 주체의 마음(心), 곧 순간적 마음의 상태와 성향으로서의 주체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적 의식까지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상에 대한 감상이 생활 속에 실행되면 정은 단순히 감각기관에 반응하는 본능적 반사작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내면과 연결된 의식의 결과로서의 마음상태나 성향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정은 문학의 내용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감각의 차원을 넘어서 판단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니, 곧 미적대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이 미적대상으로서의 서정을 미적감정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러

2) 이대규, 위의 책, p.219.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므로 이 미적감정에 대한 주목은 미에 대한 개념적 인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적감정에 주목하여, 개념과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이성적 존재에서 벗어난 자유의 식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화된 인생체험에 대한 탐색이며 결국은 미의식의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고전시가의 흐름을 지도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예술적 삶에 대한 개관과 문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또한 그것을 어떤 소재와 계기에 의하여 시가 예술로 형상화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민족적 정서의 공통성을 파악해 보고 실제 생활과 문학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갔는가를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교육의 대상인 지금 중고등학생의 삶의 현장은 고전시가의 시대와는 너무나 변화된 삶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전시가를 대할 때면 엄청난 충격적 이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서양의 사상이나 문명, 문화 등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변화해 갔을 뿐 우리의 자각에 의한 민족문화전통의 현재성 발견에 따른 점진적 변용과 발전의 과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전시가 교육은 단시간적인 결과를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전시가에 대한 이해의 태도를 문학의 보편적 정서와 연결시키면서 그 수단을 고전시가로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이때 고전시가를 너무 개념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내지는 상황과 연결하여 지도하면 학생들은 고전시가를 현재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과거적 사실로만 인식하고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일회적 과정으로만 이해하여 자신들의 삶과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를 야기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전시가교육은 반드시 현대문학과 연결을 생각하면서 고전문학사를 기반으로 하여 문학기론을 중심으로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전시가에 대한 이론은 대단히 미약하며 특히 고전시가교육과 지도에 대한 이론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이다. 따라서 결국 문학기론 중심의 고전시가교육은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문학용어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작품의 서정에 대한 추체험을 중요시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전시가의 발생과 전체적 흐름 그리

고 지도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제천의식

제천의식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단편적인 부분이 있다. 고대 우리 민족의 제천의식은 농사의 파종이나 추수 후에 집단으로 모여서 춤과 노래를 즐겼다. 제천의식은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식이다. 의식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이다. 집단적이란 제천의식을 실행하고 주관하는 주체가 어떤 집단이라는 것이다. 곧 집단의 대표에 의하여 이러한 의식은 행하여진다. 그래서 이 의식은 집단전체의 공동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면 하늘에 제사지내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엇겠는가. 그것은 농사의 파종 후에는 물론 농작물의 싹이 잘 자라서 풍년이 들게 하여 달라는 기원을 하늘에 하였을 것이며, 추수 후에는 풍년이 들어 배고픔의 고통과 약탈로 인한 죽음과 질병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말들이 제천의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천의식에 의하여 국가적 모임을 갖고 며칠씩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고 노래부르고 춤을 추었다는 기록은 이미 상당히 국가적 체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시가의 중요성이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고대인의 문화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며 삶의 祈願과 기쁨을 이미 시가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의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하늘'이란 개념이 이미 우리 시가나 의식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농사의 파종 후나 추수 후에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것은 농사의 풍년과 흉년이 하늘의 의지에 매달려 있다는 의식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늘이 이미 의지를 가진 어떤 절대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늘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존재로 의식된다는 것은 제천의식이 종교적 의식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실지로 농작물은 땅에서 자라며 사람의 생활 공간도 땅이다. 그런데도 땅에서의 길흉화복이 하늘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생각은 과연 언제부터일까. 이 문제는 논외로 하겠다. 땅에서의 길흉화복이 하늘의 의지에 있다는 생각은 의식의 차원에서 하늘을 절대적이고 최상위의 개념으로 땅은 그 실행처이며 하늘에 비하여 하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반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영하는 것이다. 즉 하늘은 근원적인 원리로 땅은 그 실행자로 이분되는 의식구조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우주의 구조를 하늘과 땅, 원리와 실행이라는 이원구조로 사유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지내며 불리워진 시가는 좀더 근원적이고 절대적 권능을 찬양하는 최상위의 성스러운 내용이었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제천의식에서 불리워진 노래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권능에 감복하고 그 결과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와 감격이 주된 내용과 정서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대의 제천의식은 제정일치 시대에 있어서 국가적인 행사였다. 따라서 이 때에 불리워진 노래들은 일종의 의식요이다. 그 후 차츰 국가의 형태가 체제를 완성해 나감에 따라 이러한 의식요도 그 시대의 요구와 국가의 필요성에 의하여 변천되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삼국 중에서도 신라의 향가는 고대적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가작품이다. 그 중에서 월명사의 「兜率歌」는 二日竝現이란 국가적 재앙을 물리치는 국가적 의식에서 불리워진 의식요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식요들은 아마 후대에 이르러서 악장으로 발전하기도 하였으니 조선조에 들어와 순수국문으로 지어진 「용비어천가」가 그 전통의 일맥을 잇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천의식과 연관된 의식요들은 중고등학교의 고전시가교육에 있어 장엄함이나 성스러움 그리고 운명에 대한 감사나 감격의 감정 나아가 우리 시가에 하늘을 노래하게 된 연원과 삶과 행동의 근원적 원리로서 하늘의 이미지, 나아가 자연에 대한 고대인의 의식세계 등을 지도하기에 알맞는 학습수단이 될 것이다.

2. 노동

사람은 노동을 하여야만 살아간다. 또 노동을 하여야만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고, 노동이야말로 인간생활의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인간 사회는 노동을 통하여 모든 삶과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이란 원래 피로움을 동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농경사회에 있어서 노동이란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에서 느끼는 고통과 피로움을 스스로 위로하고자 저절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으며, 나아가 노동의 결과에 대한 만족을 노래하게도 되었

다. 이 노동이란 생산활동의 하나이다. 그래서 노동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서도 노래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이란 농경사회의 생활 그 자체였다. 따라서 노동의 고통과 스스로의 위로를 위한 노래는 결국 생활문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다. 노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개인의 일상이다. 일상은 특별한 환경적 변화가 없는 한 매일 반복되어진다. 이 반복되는 일상은 생활의 무료함과 더불어 고통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노동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을 소재로 한 시가는 어떤 이념보다는 일상의 감정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요가 진행되는 경우도 집단적으로 불리어진 경우도 있으나 주로 개인의 일상에서 많이 불리어졌는데 그 작가도 민간대중이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노래의 소재가 개인의 일상이며 작가가 민간대중이라는 사실은 노동을 노래한 시가의 성격과 특징을 알 수 있는 요점이 된다. 먼저 노래의 소재가 개인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이 노래가 개인의 서정 중심의 노래라는 것이다. 고대 사회에서 발생한 제천의식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시가사적으로 서정시의 영역을 개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집단적이며 신화적 고대 종교적 성격이 농후했던 시가가 개인의 서정시로 이동하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을 소재로 하는 개인 서정시의 발생은 고전시가사에서 소재의 다양성과 함께 개성의 문학이 발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작가가 민간대중이라는 점은 시가의 주체가 여러 계층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시가의 기능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농부는 농사짓은 생활의 애환을 노래하고, 어부는 고기잡이의 기쁨이나 고통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존하는 기록문학 가운데 노동을 소재로 한 시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물론 「龜旨歌」에 부대된 설화에서 '掘峯頂掘土'라는 기록을 토대로 노동요로서의 성격을 논의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가는 고대의 제천의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집단적이며 원시종교적 색채가 너무 농후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향가에서 그 예를 찾는다면 釋 良志가 靈廟寺 丈六尊像을 塑造할 때 도성의 많은 남녀들이 흠을 나르면서 부른 4구체의 민요형식인 「風謠」를 들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시가도 집단적이며 서사적 요소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풍요」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노동요는 주로 민요형식으로 불리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동요가 민요형식이라는 점은 그 노동의 주체가 민간대중이었다는 것으로 노동요의 주된 내용은 민간대중의 노동에서 느끼는 정서를 위주로 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무래도 서정성이 강한 민중의 노동요는 민간에서 구전되는 민요와 잡가류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고등학교 고전시가교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노동요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다. 오늘날 노동이란 개념은 육체적 노동이라는 선입견과 함께 계급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노동이란 개념이 어떤 이념을 대변할 수도 있고 또한 오늘날 직업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요란 직업의 분류상 어떤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과 같은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시가 중의 노동요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다. 고전시가에서 논의되는 노동요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역사사회적 환경과 발전을 전제로 하여야만 한다. 오늘날은 산업사회이며 우리의 역사는 오랜 농경문화의 소산이다. 그 당시의 노동은 주로 농경사회의 한 현상이며 농경문화의 여러 모습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전시가의 노동요는 농경문화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의 여러 모습과 일상의 정서들을 노래하고 있는 민간대중들의 생활문학이라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천의식이 집단적이며 원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공식적인 성격을 지닌다면 노동은 개인적이며 일상적인 생활의 한 부분이었던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동요는 일반민중의 생활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서정적 성격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동시에 우리 고전시가 속의 노동요는 그 정서가 민족공통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의 민간대중은 대부분이 농경에 종사하였으며 농경은 국가적인 산업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가적 행사는 농경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으며 실행되고 평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의 노동은 산업사회에서 인식되는 육체적 노동계층에 대한 평가나 이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증거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농경에 대한 인식에서 그 일단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조선조 사대부 시가에는 농경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시가가 대단히 많다. 이 때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농경은 평화와 안식 그리고 無慾의 표상이었다. 물론 사대부들이 직접 농경에 참여하고 노동을 실제 생활의

일상으로 경험하였느냐 하는 점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농경에 대한 인식이 산업사회에서의 노동에 대한 인식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사대부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은 오직 사대부들의 전유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민족의 대다수가 농경사회의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농경의 노동에 대한 인식에 공통점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저절로 노동요에서 노래하고 있는 노동의 고통과 노동생활의 무리함 그리고 나아가서 농경의 노동이라는 일상의 애환에 대한 정서는 민족 대부분이 공감하는 공통적 정서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민족의 전통적 정서로서 오늘날까지도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은 이러한 노동요를 통하여 산업사회라는 현재의 삶 속에서 조상들의 농경생활에 대한 상상과 함께 농경생활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공감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자연환경

자연환경을 노래한 시가는 우리 고전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진정 아름다움의 세계를 개척하여 고전시가의 문학성과 심미성을 완성하였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운율미를 동경하는 자질을 타고났다. 따라서 자연의 여러 소리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일깨운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푸른 잎과 붉은 꽃의 색조 등등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문학이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한 역사적 소산물이라면 우리의 자연은 민족의 삶의 바탕이요 환경으로, 고전문학에서는 주로 산수라고 일컬었다. 상고시대의 제천의식도 크게는 이러한 개념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으니, 하늘과 땅과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의 지배자로서 숭앙의 대상이요 종교적 숭배의 위대한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단군왕검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품고 내려 온 신단수는 성수로서 신물이며 우주의 중심이었다. 이런 숭천사상과 산천숭배사상은 신라가 五岳을 정하고 국가의 제례의식인 中祀를 올린 데에서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이자 환경인 자연이 언제부터 미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서는 일찍부터 등장하였다. 하늘의 푸르름, 꽃의 붉은 색, 나뭇잎과 꽃

고전시대의 형식과 지도

잎의 초록, 봄이 되면 온 산을 물들이는 분홍빛 진달래, 시골 농가 울타리에 둘러 피는 노란 개나리 등, 자연의 빛깔은 새색시의 녹의홍상과 어린이의 색동옷이나 고려 청자와 같은 문화적 양식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연의 빛깔로서 그 형식을 본땀다. 자연은 빛깔만이 아니라 음향마저 우리 민족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니, 갈숲을 지나는 바람소리는 피리소리나 대금소리로, 대숲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장구소리로, 솔숲을 지나 골짜기를 지나가는 소리는 징소리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자연의 형식들은 모두가 민족의 감정에 무한한 감동을 주어 상상을 불러 일으켰다. 상고시대 고구려 제 2대 유리왕은 버들가지 위에 나는 피꼬리의 형상을 ‘飛鳥’이라 표현하였으며, 암컷과 수컷이 어울려 지저귀는 소리와 그 모습에서 ‘남녀간 사랑의 정겨움’을 상상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의 고독과 쓸쓸한 심정을 상기하였다. 신라시대 순정공의 부인 수로의 설화에 등장하는 철쭉은 사랑의 매개물이며 충담사의 찬기파랑가에 등장하는 잣나무는 기파랑의 기상과 송고한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연물이다. 이 시대에 이르면 자연물은 어느덧 신성성을 상당히 상실하고 오히려 개인의 심정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그 자연물의 형식에서 느끼는 감동과 상상적 의미를 작가가 마음 속의 생각(知)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끌어와 이용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의 형식에서 느끼는 감동과 상상적 의미는 대단히 순수한 것으로 일부러 작가에 의하여 의미가 부여되거나 혹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작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그 형식만으로도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민족이 발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물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속성이다. 따라서 상고시대 우리 민족의 삶은 이런 자연의 형식을 모방하고 자연상태를 회복하여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삶을 지향하였다. 그런데 학술과 문명의 발달로 자연에 점차 형이상학적인 가치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색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우리 고전문학의 배경이 된 사상은 儒佛仙이 그 대표인데, 삼국이 통일되기 이전까지는 아마도 자연경물인 초목류, 飛禽走獸 및 물과 돌 같은 경물 개개의 형식적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정도가 일반적이었고, 자연 그 자체를 사색의 대상으로 삼거나 자연의 이법과 같은 차원 높은 사색의 영역을 문학 속에서 개척하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시기였다. 그러나 신라의 화랑들은 遊娛山水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산수를 집단 의식의 고취와 수련의 장소로 인식하여 無遠不至하였으니, 산

수는 민족의 삶 속으로 성큼 다가서게 되어 산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신라 奈解王代의 勿稽子가 軍功이 있음에도 두 번이나 상을 받지 못하자 불충과 불효를 핑계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거문고를 매고서 世俗의 모든 공리와 명예 그리고 이욕을 버리고 師屍山으로 避世隱遁하여, 대나무의 끈은 성벽을 슬퍼하고 그것을 비유하여 노래를 짓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비겨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曲)를 지어 부르며 일생을 마쳤으니 우리 문학사에서는 아마도 勿稽子가 은둔하여 산수를 즐기고 노래한 최초의 사람일 것이다. 勿稽子의 避世隱遁은 산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태까지 자연은 삶의 터전이자 환경으로 현세의 삶과 분리된 장소(공간)로 인식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勿稽子에 이르러 자연은 모든 세속적 이욕을 벗어나 정신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탈속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문학사에 있어 중대한 변화로서 산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새로운 영역 개척이라는 의의가 있다. 특히 勿稽子가 대나무의 끈은 성벽을 슬퍼하여 그것에 비유하여 노래를 짓거나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거문고를 타면서 곡조를 지은 것은 자연에 자신의 감정을 기탁하여 문학 속에 형상화 하였다는 점에서 산수경물에 移情(감정이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것은 산수문학에 있어 중대한 발전이요, 중요한 발견이다.

그 후 신라 말 孤雲 최치원이 自傷不遇하여 산수를 逍遙自放하고 가야산에 은둔하여 시문을 남겼다. 최치원의 이런 행적은 산수문학 형성기반의 연원으로 산수를 은둔처로 삼고 道的인 삶을 추구하는 산수관의 전통을 마련하여 후대 많은 문인학자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최치원에 이르러 비로소 산수애호의 정신이 산수경물을 매개로 하여 문학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산수문학의 한 분기점이 되었다.

登潤州慈和寺上房

높은 곳에 오르니 문득 길은 티끌 세상과 멀어졌고
興亡을 읊조리노라니 그 恨은 더욱 새로워라
鷲角소리 들릴제 아침 저녁으로 물결이 일고
푸른 산 그림자 속에 古今 인물이 비추이누나
서리 맞아 격인 薜나무, 그 꽃 입자는 없고
따스한 바람 금릉으로 부니 풀은 절로 봄빛을 띠었구나
때마침 謝家의 餘慶이 남아 있어
길이 詩客으로 하여금 정신을 맑게 하는도다.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登臨暫隔路歧塵 吟想興亡恨益新
 畫角聲中朝暮浪 青山影裏古今人
 霜摧玉樹花無主 風暖金陵草自春
 賴有謝家餘慶在 長教詩客爽精神

登臨은 아름다운 山水一局을 조망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다. 그래서 登臨詩는 대체로 세속을 벗어난 마음의 한가로움과 정신적 즐거움 속에서 흥망성쇠와 인생무상을 노래하였다. 제1구는 고운이 慈和寺上房에 오른 감회를 노래한 것으로 서정이다. 곧 고운이 육두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2세에 唐으로 건너가 학문에 정진하면서 이국에서 느낀 개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공무로 인한 번잡함을 자화사를 찾는 순간 초탈해 버린 흥가분한 심정을 읊은 것이다. 이것은 주관적 느낌이므로 시의 표현기법상 虛에 해당하는데, 산수시에서는 유산을 통하여 느끼는 이와같은 초탈의 심정을 賞心이라고 한다. 그리고 위의 시는 이 상심이 중심을 이룬다. 고운의 상심은 운주를 유람하고 자화사를 탐방한 직접적인 자기체험의 심정인데, 이 고운의 상심은 경물을 감상하는 사이에 느낀 인생무상과 대자연의 영원함을 대비함으로써 더욱 뚜렷이 구체화되고 깊어진다. 우선 고운은 세속과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지난날 운주를 중심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생각하고 문득 화각성을 들으며 전장의 참혹함을 상상하게 된다. 지금은 오직 朝夕으로 고요히 물결치는 장강과 청산이 옛날 치열한 전장이었음을 상기하는 순간 고금의 영웅과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사와 세상사의 무상과 허무를 깨닫는다. 그러나 금릉에 부는 따뜻한 바람 속에 절로 봄빛을 띠는 한갓 풀에서 대자연의 영원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절을 어기지 않는 대자연의 엄숙함. 이 대자연 앞에 선 자신도 한갓 지나간 靑山影裏古今人 중의 하나인 것을. 그래도 인간의 산수를 사랑한 정신만이 영원하여 시한 수 속에 流傳함을 느끼고 자신도 감회를 시로 노래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치원에 이르러 비로소 산수애호의 정신이 산수경물을 매개로 하여 문학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산수문학의 한 분기점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산수경물에 대한 묘사는 산수문학의 가장 큰 특색인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서경이 부족하며, 그의 은둔은 노장적 경향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다. 고려의 이자현은 문벌귀족으로 불교의 선에 심취되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초개같이 여기고 춘천 청평산에 은둔하여 문하의 禪僧들과 불교의 宗旨를 담론하며 왕의 수차례에 걸친 부름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산 속에서 終老하였다. 이자현의 은둔은 오직 산수애호의 정신이 깊어 고칠 수 없는 성벽으로 굳어진 데 기인한다. 곧 개인적인 불운이나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오직 불교의 선이라는 종교적 진리와 도의 체득에서 비롯된 새로운 삶의 개척이라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으니, 그의 은둔은 세속의 욕망을 떨쳐버린 구도적 삶의 실천이라는 큰 의의가 있다. 비록 이자현의 은둔이 불교의 선에 심취되었다고는 하나, 그가 왕에게 올린 疏를 보면 그의 산수애호 정신의 깊이와 산수생활이 체질화되고 삶의 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산수를 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최치원이 산수를 문학적 측면에서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면 이자현은 禪의 경지에서 도의 차원으로 승화시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라 말 道誥에 의하여 풍수설이 나온 후 산수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여기에 신선사상이 덧붙여져서 도가적인 산수관이 형성되었으니, 고려 예종 때의 郭輿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輿는 이자현과 더불어 동방급제하였는데, 그가 이자현의 은둔처를 찾았다가 깊은 감동을 받아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산수에 은둔하였다. 예종이 즉위하여 그에게 도성 가까이에 있는 산 한 봉우리를 하사하자 거기에 東山齋를 짓고 烏絲帽에 鶴창의를 입고 다녀 사람들이 金門羽客이라 하였다. 예종도 동산재를 찾았으니, 당시 산수생활에 대한 동경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輿는 아마도 도교에 심취된 은둔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輿의 은둔은 도교의 신선사상에 깊이 매료된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고려 전기 문벌귀족들은 그들의 부를 바탕으로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였으며, 그 속에 별서나 사찰을 짓고 유락의 장소로 삼아 산수를 즐기며 시문을 짓는 풍조가 고상한 취미로 여겨졌는데, 무신란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하여 산수문학의 형성을 가속화 하였다. 산수를 유락의 장소로 인식하였음은 산수문학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발전이기는 하였으나 아직 산수 그 자체를 미적인 대상으로 사유하지는 못하였으며 산수경물을 완상하고 유락을 즐겼을 뿐 어떤 미의식을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산수를 찾는 까닭이 세속의 번잡함과 일상을 벗어난 탈속의 홀가분한 심정과 정신적 자유와 여유를 느끼고자 함에 있었으니 賞心이 극대화되어 산수유락이 점차 극대화되고 본격화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수에 대한 감성적 인식의 차원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산수문학에 있어 산수에 대한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감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성적 인식의 내용미를 발견하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정신세계를 개척하여 형식미와 내용미가 융화된 산수미의 詩境을 개척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고려말 安珦에 의하여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安軸의 「關東別曲」과 「竹溪別曲」에 와서 관동지방의 승경과 죽계의 산수에 대한 상당히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서경을 통하여 본격적인 산수문학의 출현을 예고하였다. 성리학은 우주적 진리를 궁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진리의 체득을 위해서는 심성을 존양성찰함을 전제로 한다. 심성의 존양과 성찰은 모든 이욕을 버린 구도적 삶 속에서 도에 이르고자 하는 학적방법으로 敬에 함축된다. 이 경은 실천 철학의 영역으로 현실의 삶에서 실천궁행하여 생활로 구현되어야만 할 당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주적 진리인 理가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필연성에 대한 究明이라면, 경은 강한 실천의지요 규범으로서의 당위인 도덕적 선의 회복을 의미한다. 조선조 초기 맹사성의 「江湖四時歌」는 성리학적 세계관과 유학자의 취향에 알맞는 검소하고 소박한 致仕客의 유유자적한 산수생활을 노래하여 산수애호의 정신이 물아일체하는 산수친화의 정신세계로 승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조 유학자들에게 산수생활의 새로운 典範을 제시하였다. 그 뒤 龔巖 李賢輔는 치사 후 汾川之上에 배를 띄우고 「漁父歌」를 纂定하고 侍童으로 하여금 산수생활의 유유자적과 산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였으니 陶南이 강호가도를 창도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연산군에 이르러 사화와 당쟁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어 성리학적 세계관이 위협을 받게 되자 사립들은 더욱 그들의 가치실현을 위해 생사까지 초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발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사대부가 귀양을 가거나 혹은 明哲保身을 위하여 출사를 기피하고 향리에 머물러 더욱 산수와 가까워졌다. 또 치사객들도 여기에 가세하여 산수문학이 완성 발전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선조의 사상을 지배하던 성리학은 退溪에 의하여 비로소 체계화되고 완성되어 영남 사림을 중심으로 유학적 세계관과 인생관이 확립되어 조선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사상을 배경으로 산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산수를 철학적 사색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어 본격적인 산수문학이 완성되게 되었다. 퇴계의 「陶山十二曲」은 시조라는 순수국문학 장르로 형식미와 퇴계학의 이념과 미의식이 표현된 우리나라 산수문학의 정점이자 白眉이다. 그래서 「도산십이곡」에 등장하는 산수는 이념의 표상으로 차원 높은 철학의 형이상학적 이념을 함축

하고 있으니, 비로소 퇴계에 의하여 우리나라 산수문학은 차원높은 이념적 詩境을 창출하였고 후대 산수문학의 전형이 되어 국문학사에 하나의 전통을 형성하였다. 도산십이곡의 전통은 六曲系 시가인 장경세의 「江湖戀君歌」와 申暉의 「伴鷗亭歌」에 의하여 그 형식과 정신이 效倣되었다. 권호문은 퇴계의 학문정신을 잘 계승하고 처사로서 산림문학을 확립하여 「獨樂八曲」과 「閒居十八曲」에서 처사문학적 산수관을 형상화하였다. 「高山九曲歌」는 성리학적 미의식이 잘 형상화 되었으며, 주기론자로서 율곡의 산수관이 반영된 순수 국문학 작품으로 「도산십이곡」과 함께 산수문학의 절창이다. 「어부가」는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산수문학에 속하는 작품인데, 이현보가 찬정하였으니 가히 농암의 창작에 가깝다. 이것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까지 그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산수문학에 나타난 사대부의 자연인식의 양상은 퇴계의 이념적 표상, 농암의 自足的 공간, 고산의 유희적 형상으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고전시가 교육에 있어 자연을 노래한 시가를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소재의 공통성으로 말미암아 문예사조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연을 노래한 시가들을 모두 당쟁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사건과 연결 짓거나 현실도피적인 양반사대부계층의 유희적 성격만을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란 점이다.

그 다음으로는 자연을 노래한 고전시가를 통시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시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연의 전통이 현대시가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문학사의 연속성의 강조를 의미한다. 흔히 고전문학사와 현대문학사를 구분하여 지도하는 관례로 현대시가는 마치 서구의 문학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발전한 것으로 우리문학의 전통과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듯한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Ⅲ. 시가 분석의 실제와 지도

고전시가의 분석과 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시해야만 될 점은 역시 용어의 개념과 그 용어가 생성된 사회적 문학적 환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우선 중등학교의 고전시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自然合一에 대하여 그 개념과 함께 해석의 관점에 따라 문학의 내용과 경향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이것은 고전시가의 이론을 체계화하는 과정의 하나이며, 고전시가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하나의 시도이다.

1. 自然과 合一

自然合一을 '자연과 합일한다'라고 할 때 자연과 합일한 주체는 감상자 자신이다. 곧 자아가 된다. 따라서 자연합일은 '내가 자연과 합일한다'로 풀이할 수가 있다. 이때 자연은 개개의 경물과 그 경물로 모습을 드러내는 전체로서의 대자연을 함께 지칭한다고 하겠다. 자연에 인공이 가해지면 그것은 자연의 상태를 벗어나 인간의 영역으로 전환되어 용도를 부여받고 정해진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그러한 용도와 기능을 부여한 인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또 자연은 원래 그 이름이 없는 것인데 인간이 자연을 명명함으로써 자연경물을 상호구별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자연은 사람에 의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여 인간사회의 문화 속으로 진입하게 된다.

자연을 감상함에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의 동인은 대상인 자연에서 촉발되었지만 그러한 감동을 느끼는 것은 자아의 심리현상이며 정신적 만족이다. 따라서 자연합일은 자이를 망각하고 대상 속으로 자신의 현상적 모습을 변형시켜 나가는 현상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아가 현재적 모습을 탈피하고, 현재적 모습을 초월한 인공이 가해지지 않았던 원초적 모습의 형태로 현상적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본래적인 자연에 귀속하고 하나로 통합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연과 합일한다는 것은 어떤 이상을 지향하는 관념적 사유에 지나지 않아, 국문학에서 仙境에 대한 동경, 신선적 심경의 토로 등이 이러한 증좌라고 할 수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낭만주의 계열에 속한다.

2. 自然에 合一

자연에 합일은 '내가 자연에 나아가 (자연을 매개하여) 하나(一)에 합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 이때 자연은 장소 내지는 하나의 대상이다. 오히려 대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자연합일의 주체는 항상 자아가 중심이며 자아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연과 자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곧 현상으로서의 자연과 현상으로서의 자아를 각각 독립된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는 사고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체계는 산수문학에 있어 객관적 서경을 매개로 하는 사실주의적 시경을 개척하였다고 하겠고 이런 경향의 시가가 진정한 산수문학이 지향하는 최고의 예술적 境界이다.

그러므로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고전시가이론 지도를 시도할 경우에는 그 용어가 사용되게 된 사상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찰과 함께 문학사상으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전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만약 이론지도가 사상적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할 경우를 경계하여야만 한다. 이론은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근거가 확실하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객관성과 학술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이론적 시도란 단순한 주관적 추정이나 유추에 불과할 뿐이며 나아가 고전시가 이해의 패턴화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문학 교육의 내용은 문학이론의 개념과 명제와 절차이고, 문학교육의 목표는 문학교육의 내용을 학생이 학습한 상태-문학교육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기억한 내용을 사용하여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할 능력이 발달되고, 문학현상을 문학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능력이 학생에게 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³⁾

IV. 결 론

이상에서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고전시가교육은 수업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고전시가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고 또한 즉각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기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고전시가교육은 교육의 절차보다는 오히려 교

3) 이대규, 앞의 책, p. 218.

고전시가의 흐름과 지도

육내용의 선정과 고전시가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좀더 명확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교육의 내용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론 중심의 수업모형을 구체화하는 것인 데, 그 모델의 기본작업은 역시 고전시가를 발생의 기원에서부터 통시적으로 개관하고 그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이제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천의식과 연관된 의식요들은 중고등학교의 고전시가교육에서 장엄함이나 성스러움 그리고 운명에 대한 감사나 감격의 감정 나아가 우리 시가에 하늘을 노래하게 된 연원과 삶과 행동의 근원적 원리로서 하늘의 이미지, 나아가 자연에 대한 고대인의 의식세계 등을 지도하기에 알맞다.

둘째, 노동요의 지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그 성격에 대한 규정이다. 왜냐하면 노동이란 개념이 어떤 이념을 대변할 수도 있고 또한 오늘날 직업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요란 직업의 분류상 어떤 특정한 계층의 전유물과 같은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요는 농경사회에 있어서 일반 민간대중의 개인적이며 일상적인 생활 감정을 위주로 하는 서정적 성격이 농후하다. 따라서 노동요에서 노래하고 있는 농경의 노동이라는 일상의 애환에 대한 정서는 농경문화생활을 영위하였던 민족 대부분이 공감하는 공통적 정서이었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요를 통하여 산업사회라는 현재의 삶 속에서 조상들의 농경생활에 대한 상상과 농경문화에 대한 민족적 정서를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자연을 노래한 시가교육에서 유의할 것은 소재의 공통성으로 말미암아 문예사조의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통시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도해야만 한다. 이것은 고전시가에서 노래하고 있는 자연의 전통이 현대시가에도 연결되고 있다는 문학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고전시가에 등장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론화를 시도할 경우에는 그 용어가 사용되게 된 사상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고찰과 함께 문학사상으로서의 역사적 사회적 전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